

아산-SIPRI 국제회의의 세션 2 주요 발언

아산-SIPRI 국제회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

제 2 세션: 전통안보이슈 협력과 도전

“전통 안보 분야 협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2 세션에서 미국·중국·일본·한국 참석자들은 동북아시아의 신뢰구축조치(CSBM)와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CSBM의 발전과 안보 문제의 통제·관리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세션엔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CFR) 한국학연구소 스콧스나이더 수석연구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윌리엄 알베르크 군비통제과장, 중국의 판 제취양 중국 개혁포럼 고위 고문,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Morimoto Satoshi) 전 국방부 장관, 한국 국방연구원 조남훈 박사가 참석했다.

통합을 위한 각국의 역할과 관련, 판 전 장관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가 간 통합을 위한 최적의 중재자”라고 강조한 반면 일본의 모리모토 전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동북아의 문제는 현존하는 합의와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해 중국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알베르크 과장은 “신뢰구축을 위해 추상적 논의를 넘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로 이끌어갈 지역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안보·비전통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CSBM에 한국이 동북아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느끼는 실제적 안보 위기의 정도가 타 국가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남훈 박사(국방연구원)는 “유럽과 동북아시아는 CSBM 도입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주된 걸림돌로 북한문제를 꼽았다. 조 박사는 “북한문제의 해결 전에는 CSBM 도입이 힘들다”며 “북한 문제를 제외한 중국의 군사화,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같은 안보문제들이 CSBM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